

# 늘푸른물결

통권 265

환경을 생각하는  
첫번째 실천, 환경운동연합  
회원을 권해 주세요

10 2021



## “시민과 함께 하는 물살리기 플로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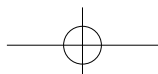
당진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0월 02일 삽교호 방조제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물살리기 플로깅’을 진행하였습니다. 20여명의 회원과 당진시민이 참여해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줍기 봉사를 하며 환경을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4차 “시민과 함께하는 물살리기 플로깅”

- 일 시 : 2021년 10월 30일 오전 9시 문예의 전당 주차장 출발
- 장 소 : 추후 공지 - 봉사 시간 : 3시간 - 참가 문의 : 041-355-7661(사무국)



"세월호 철저한 진상규명"





"충남, 온실가스 발생량 전국 1위... 석탄화력 조기 폐쇄해야"



'석탄 ↓ 재생↑' 충남형 2050 탄소중립 비전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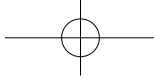
당진환경운동연합, 삽교호 방조제 환경정화활동

- ▶ 발행일 2021. 10. 10.
- ▶ 발행인 손창원, 송영주, 황성렬
- ▶ 편집인 최오상
- ▶ 편집위원 팽말숙, 김정진, 이동준, 유형민, 임아연, 박은정, 조순형
- ▶ 당진시 무수동옛길32 태영빌딩 204호
- ▶ 전 화/ 355-7661
- ▶ 전 송/ 355-0443
- ▶ E-mail/ dangjin@kfem.or.kr
- ▶ http://dangjin.kfem.or.kr

2\_늘푸른물결 | 2021-10

- 3 이달의 시  
| 가을 / 김용택
- 4 지역환경초점1  
|"충남, 온실가스 발생량 전국 1위... 석탄화력 조기 폐쇄해야"
- 6 지역환경초점2  
|"석탄 ↓ 재생↑" 충남형 2050 탄소중립 비전 제시
- 8 지역환경단신1  
|당진환경운동연합, 삽교호 방조제 환경정화활동
- 9 지역환경단신2  
|충남도의회, 소들섬 야생동물보호구역 지정 청원 채택
- 10 지역환경단신3  
|제 9회 충남환경교육한마당, 10일 당진시청서 개막
- 11 전국환경초점1  
|"강릉안인석탄발전소 건설 중단하라"
- 12 전국환경초점2  
|원안위, 이제서야 "월성원전 부지, 방사성물질 누출" 인정
- 14 영화를 소개합니다.  
|엔터처블 1%의 우정
- 16 전국환경초점3  
|"기후위기 시대 10개나 되는 공항개발? 당장 철회해야"
- 17 9월 살림살이
- 18 석탄씨를 구해줘  
|제 13화 지금 뭐라고 하신거예요?
- 20 9월 활동소식
- 22 10월 주요사업 계획
- 23 환경을 사랑하는 사람들
- 24 광고





# 가을

김용택

가을입니다  
 해질녘 먼 들 어스름이  
 내 눈 안에 들어섰습니다.  
 윗녘 아랫녘 온 들녘이  
 모두 샅노랗게 눈물겹습니다  
 말로 글로 다할 수 없는  
 내 가슴속의 눈물겨운 인정과  
 사랑의 정감들을  
 당신은 아시지요

저녁 이슬들이 내 발등을 적시는  
 이 아름다운 가을 서정을  
 당신께 드립니다

해 지는 풀섶에서 우는  
 풀벌레들 울음소리 따라  
 길이 살아나고  
 먼 들 끝에서 살아나는  
 불빛을 찾았습니다  
 내가 가고 해가 가고 꽃이 피는  
 작은 흙길에서



## 작가소개 - 김용택

1948년 전북임실 출생

1982년 창비 21인 신작 시집 [꺼지지 않는 햇불로]에 '섬진강1'외 8편을 발표하면서 작품활동 시작. 1986년 '맑은 날'로 제 6회 김수영

문학상 수상

# "충남, 온실가스 발생량 전국 1위... 석탄화력 조기 폐쇄해야"

## 기후위기충남행동, 25일 천안 터미널 앞에서 캠페인 진행

전 세계가 산불과 폭염 등 이상기후를 경험하고 있다. 이상기후의 원인으로 온실가스가 지목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25일 충남 천안 터미널 앞에선 기후위기충남행동 회원들이 피켓을 들고 '석탄화력 조기폐쇄하고, 재생 에너지를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캠페인에서 파란 신호등이 켜진 틈을 이용해 횡단보도에 나가 '석탄발전조기폐쇄'가 적힌 현수막을 일제히 들어 올리는 퍼포먼스를 선보이기도 했다. 일부 시민들은 이들의 활동에 관심을 보이며 '석탄발전소가 조기에 폐쇄되어야 하는 이유'와 '기후위기'에 대한 질문을 하기도 했다.

황성렬 기후위기충남행동 공동대표는 "코로나 19 시국이지만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선진국이 그동안 화석연료를 지나치게 많이 써서 지금의 위기가 닥쳤다"며 "기후위기로 가진 자와 못가진 자의 불평등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충남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국 최고 수준이다. 하지만 기후위기를 극복할 의지가 부족한 상황이다. 올해 서천에서 화력발전소가 또다시 추가로 가동되었다"며 "여기에 각 시군마다 정류장 만들 듯이 서산에 민간공항을 건설하려고 하고 있다. 권력과 자본은 여전히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김정진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지난해에는 호주에서 9개월간 산불이 지속됐다"며 "올해는 러시아 시베리아와 미국 캘리포니아에 대

▼ 이날 캠페인에서 파란 신호등이 켜진 틈을 이용해 횡단보도에 나가 '석탄발전조기폐쇄'가 적힌 현수막을 일제히 들어 올리는 퍼포먼스를 선보이기도 했다.



규모 산불이 발생했다. 시간이 없다. 기후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사무국장은 "충남은 온실가스 발생량이 전국 1위이다. 석탄을 사용하는 화력발전소와 제철소가 주범이다"라며 "지난해 충남에서 배출된 온실가스가 1억 4200만톤이다. 이 양은 전국 배출량의 약 24%이다. 특히 석탄발전사가 밀집된 충남 당진, 보령, 태안에서만 8천 3백만톤의 온실가스가 배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온실가스 배출을 멈춰야 한다. 주범은 석탄화력이다"라며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석탄화력발전소를 조기 폐쇄해야 한다. 석탄화력발전소 대신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석탄화력 추가 건설과 공항 건설 등 정부의 정책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이 재혁 충남녹색당 공동위원장은 "정부는 화력 발전소와 공항을 더 짓겠다는 어처구니없는 정책을 내놓고 있다"며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국민들이다. 기후위기를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는

지구멸망과 같은 공포를 조장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다"라며 "그동안 우리는 나와 가족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살았다. 하지만 이제는 지구별의 건강도 생각해야 할 때이다"라고 덧붙였다.  
[출처 : 오마이뉴스]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풍력 발전기 모형을 들고 있다.



지난 9월 25일 충남 천안 터미널 앞에서 기후위기 충남행동이 석탄화력 조기폐쇄, 재생에너지 확대 캠페인을 열었다.

# '석탄 ↓ 재생 ↑' 충남형 2050 탄소중립 비전 제시

예산 스플라스 리솜서 '탈석탄·탄소중립 국제 콘퍼런스' 개최  
탈석탄 금고 전국 확산, 수소도시 건설 등 제시



9월 9일 개최된 2021 탈석탄 콘퍼런스 산업부문 탄소중립 세션 참가자들

충남도가 대한민국 탄소중립 선도를 목표로 ‘충남형 2050 탄소중립’ 비전을 제시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8일 예산군 스플라스 리솜에서 열린 '2021 탈석탄·탄소중립 기후위기 선제 대응 국제 콘퍼런스'에 참석해 충남형 그린뉴딜 사업에 기반한 탄소중립 비전과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양 지사와 김명선 충남도의회 의장, 미국 기후특별 부대사 조나단 피싱 등 국내외 전문가가 참석했다. 한정에 환경부 장관, 윤순진 탄소중립위원장, 반기문 전 UN사무총장,

리빙퀸 중국 구이저우 인민정부성장 등이 영상으로 참여했다.

양 지사는 충남형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청정한 전환, 과감한 혁신, 참여형 사회, 선도적 기반 4가지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2032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14기 폐쇄  
2040년 재생에너지 자립률 40%이상**

양 지사에 따르면, 우선 충남도는 청정한 전환을 위해 도내 석탄화력발전소를 2032년까지 14기, 2050년 전부 폐쇄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 태양광과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단지를 조



2021 탈석탄 콘퍼런스 산업부문 탄소중립 세션

서해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자립률을 40% 이상 끌어올릴 예정이다.

과감한 혁신을 위해 2030년까지 RE100 혁신 벨트를 구축해 저탄소 녹색산단 생태계를 조성하고, 2040년까지 국내 수소 공급 30%를 점유할 수 있도록 부생수소 및 추출 생산기지를 조성한다. 수소도시 건설, 수소차 49만대 도입, 수소충전소 150기 설치 목표도 세웠다.

참여형 사회 조성을 위한 주요 과제로 농축수 산업 분야 저탄소 비료 사용 확대, 어선 전기·수소 전환 등을 추진한다. 국내 최대 탄소흡수원 조성 등 탄소 흡수 정책도 강화한다.

선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선 충남도가 최초 도입한 탈석탄·탄소중립 금고 전국 확산을 제시했다. 탈석탄 금고는 지자체 금고 지정 시 평가항목에 탈석탄 선언 여부, 석탄발전 투자 규모 등 탈석탄 지표를 반영해 지정한 금융기관을 일컫는다.

탈석탄·탄소중립 금고는 지난해 전국 56개 기관 참여를 시작으로 현재 69개 기관이 함께하고 있다. 연간 재정 규모로 보면 231조에 달한다.

도는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탈석탄 투자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와 교육청, 공공기관과 협력해 탈석탄·탄소중립 금고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양 지사는 “그린 충남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국가와 중앙정부도 탈석탄·탄소중립의 새 지평을 열도록 정책적 배려와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책 발표에 앞서 충남도와 인천광역시, 강원도, 전라남도는 ‘탈석탄 동맹 가입 및 친환경 에너지 전환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다. 광역단체들은 건의문에서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며 탈석탄 동맹(PPCA) 가입을 촉구했다.

[출처 : 디트뉴스]

## 당진환경운동연합, 삽교호 방조제 환경정화활동

10월 2일 시민과 함께하는 물살리기 3차 플로깅 진행



참가자들이 삽교호 주변에서 정화 활동을 하는 모습

당진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손창원 송영주 황성렬)은 10월 2일(토) 삽교호 방조제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물살리기 3차 플로깅 환경정화활동을 진행했다.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된 이날 플로깅 행사에는 20여명의 시민들이 참여했으며 삽교호 방조제에 방치된 폐 그물, 폐 부표 등 해양쓰레기와 생활쓰레기 등을 수거하는 활동을 펼쳤다.

이날 플로깅에 참여한 시민 박선미씨는 “다른 어떤 봉사활동 보다 보람된 활동이었고 딸과 함께 참여할 수 있어서 더욱 좋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참가자들이 주은 쓰레기를 모아서 차로 실어 나르고 있다.

당진환경운동연합은 5월 29일 도비도 주변 대호방조제에서 1차 플로깅, 6월 26일 석문방조제에서 2차 플로깅을 진행한 바 있으며 마지막으로 10월 30일(토) 오전에 ‘시민과 함께하는 물살리기 4차 플로깅’을 진행할 예정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회원은 041-355-7661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글: 사무국〉





## 충남도의회, 소들섬 야생동물보호구역 지정 청원 채택

33명 찬성... 당진 시민들 "소들섬 야생동물보호구역 지정에 힘 실려 기뻐"



인근에 있는 우강 초등학교 학생들이 고사리 손을 보태 화제가 됐다.

이계양(비례·더불어민주당) 충남도 의원은 "청원인 중에는 우강초등학교 어린이와 지역 학생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며 "이번 청원 채택은 주민 생존권 보장과 생태환경 보호뿐 아니라 학생들의 참정권과 생태학습권 보장 등에 대한 충남도의회 의 화답"이라고 밝

충남 당진시 삼교호에 위치한 소들섬 일원을 야생동물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절차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최근 한국전력이 삼교호 소들섬과 인근 마을에 송전철탑을 지으려 하자 주민들이 집단 반발했다. 급기야 주민들은 지난 달 말 소들섬 인근을 야생동물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달라며 청원을 냈고, 충남도의회는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14일 열린 제331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당진 삼교호 소들섬 일원을 야생동물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달라며 주민들이 낸 청원을 채택했다. 청원 채택은 재석 의원 34명 중 33명의 찬성으로 이루어졌다. 이번에 채택한 청원은 양승조 충남도지사에게 이송돼 처리될 예정이다.

앞서 당진시민 402명은 지난 8월 31일 충남도의회에 해당 청원을 제출했다. 청원에는 소들섬

했다.

청원 당사자인 주민들도 기쁨을 감추지 않았다. 김영란 주민 대표는 "청원을 통해 시민으로서 갖는 당연한 권리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청원을 통해 민원을 처리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며 "야생동물 보호구역 지정과 소들섬 철탑을 막는 데 첫발을 내딛게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당진시에서도 13일 관련 조례가 통과되었다.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되어 무엇보다 기쁘다"면서 "17만 당진시민이 염원하는 일인 만큼 충남도에서도 신속하게 청원을 처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강 주민 유이계씨도 "소들섬 야생동물보호구역 지정에 힘이 실려서 기쁘다"며 "소들섬의 생태와 자연환경을 지키기 위해 애써준 도의원들에게도 감사한 마음이다"라고 말했다.

[출처:오마이뉴스]

## 제 9회 충남환경교육한마당, 10일 당진시청서 개막



지난 9월 10일 충남환경교육한마당 행사에서 당진환경운동연합은 다육이 심기 부스를 운영했다.

충남환경교육네트워크와 당진환경교육네트워크가 주최하고 충남환경교육센터와 당진지역환경교육센터가 주관하며 충청도와 충남도교육청, 당진시가 후원하는 제 9회 충남환경교육한마당이 10일 당진시청에서 개막했다.

환경교육 활동가들을 격려하고 지역 환경교육 정책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된 이번 행사는 11일까지 이틀간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며 충남환경교육센터 유튜브 채널 '충남환경교육한마당'을 통해 온라인으로 실시간 중계한다.

올해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충청도와 유관기관 관계자, 학생 등 집합 행사 참석 인원을 49명으로 최소화했다.

이날 행사는 개회식, 당진시 환경교육도시 선언식, 충청남도 환경교육 아카데미, 환경교육 우수사례 발표, 학교 환경 동아리 사례 발표대회, 환

경교육 프로그램 워크숍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서 당진시는 지난해 서산시에 이어 도내 시군 가운데 두 번째로 환경교육도시를 선언하고 비전과 목표를 발표했다.

또 환경교육 아카데미를 열고 시군 및 기초 환경교육센터 담당자를 대상으로 국가환경교육과 충청남도 환경교육 정책, 충청남도 환경교육중합계획에 대해 소개하고, 충남 환경교육의 추진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와 함께 제6회 학교 환경 동아리 사례 발표대회를 진행해 도내 10개 학교의 활동 사례를 공유하고 시상했으며 6개 환경교육 시범마을의 환경교육 사례도 살펴봤다.

11일에는 환경교육 프로그램 경연대회를 열고 도내 환경교육 기관 단체 활동가의 활동 내용을 공유하고 역량 강화의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출처 : 노컷뉴스]

## “강릉안인석탄발전소 건설 중단하라”



지난 9월 27일 강릉안인화력발전소 건설 중단 촉구를 위해 당진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함께 했습니다.

시민과 환경단체 등이 강릉에 건설 중인 안인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안인석탄화력발전소 강릉범시민대책위원회’와 ‘석탄을 넘어서’는 27일 오후 강원도 강릉시 안인석탄화력발전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민들도 원하지 않는 발전소 건설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대책위가 지난 6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시민 63.1%가 발전소 건설을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또 74.3%는 발전소가 동으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들은 “안인석탄화력발전소는 연간 1530만 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정부가 5년간 73조원을 들여 감축할 온실가스 1225만톤보다 많다. 거금을 들여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보다 발전소 건설을 중단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온실가스 감축뿐 아니라 대기오염 물질 배출로 인한 건

강 악화도 문제다. 연간 2764톤의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해 30년 동안 최대 1050명의 조기 사망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국내 기후·환경단체가 연대하고 있는 전국 탈석탄연대 ‘석탄을 넘어서’는 이런 문제점을 전국적으로 알리기 위해 지난 26일부터 이틀간 강릉을 찾았다. 26일 오후 시의회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기후위기의 원인과 현황’ 등을 주제로 한 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대책위원회 김종남 위원은 “석탄화력 건설은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강릉의 청정자연과 인근 주민의 건강과 미래에 관한 문제다. 해당 기업과 정부는 하루빨리 건설 중단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강릉안인석탄화력발전소는 2080MW 규모로 현재 75% 공정률을 보이며 2023년 준공을 앞두고 있다.

[출처:한겨레신문]

# 원안위, 이제서야 “월성원전 부지, 방사성물질 누출” 인정

## 1997년 차수막 보수 하자 등 유출원인 확인 환경단체들 “부실 원전 안전 관리 실태 드러나”



2019년 말 영구정지된 경북 경주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전 1호기(오른쪽). [출처:연합뉴스]

월성원전 부지 내 토양과 물에서 세슘-137과 삼중수소 등 방사성 물질이 검출됐다고 원자력 안전위원회(원안위)가 공식 발표했다. 핵분열 생성 물질 등의 외부 유출을 차단하는 차수구조물의 하자가 확인된 1997년부터 최대 20년 이상 방사성 물질이 누출되어왔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원안위는 10일 월성원전 삼중수소 민간조사단과 현안소통협의회가 진행한 삼중수소 제1차 조사 경과를 발표하고 월성원전 부지 내 사용후 핵연료 저장조(SFB) 주변 시료에서 삼중수소와 감마핵종 등 방사성 핵종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2019년 4월 월성 3호기 터빈갭러리 맨홀 안 고인 물에서 최대 71만3000Bq/L의 삼중수

소가 검출된 뒤 인근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자 지난 3월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단의 발표를 보면, 월성 1호기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주변 심도 9m가량의 토양 시료에서 감마핵종인 세슘-137이 최대 0.37Bq/g 검출됐다. 고준위 방사성 물질인 세슘-137의 자체 처분 허용농도(0.1Bq/g)보다 3배가량 많은 양이 나온 것이다. 같은 심도의 물 시료에서는 삼중수소 최대 75만6000Bq/L, 세슘-137은 최대 0.14Bq/g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단은 1997년에 월성 1호기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차수막이 원 설계와 달리 시공돼 그 시점 이후부터는 차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조사단은 “사용

후핵연료 벽체 저장조의 누설수에서 나타나는 삼중수소 농도(15만~45만Bq/L)보다 주변 물 시료의 농도가 높게 측정되고 감마핵종도 검출돼 추가 유입 경로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누출 의혹이 처음 불거진 뒤 ‘부인’ 또는 ‘비공개’ 입장을 고수해오던 원안위가 월성원전 부지 내 방사성 물질 유출을 공식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건설 과정부터 위험성이 예견됐고 유출 제보가 쏟아졌지만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적은 없었다. 2013년에도 월성 3호기 일부 관측 정에서 삼중수소가 검출됐고, 2017년부터 검출 농도가 크게 높아졌으나 월성원전을 운영하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2019년 5월에야 ‘삼중수소 현안 특별팀’을 꾸렸고 이후 조사 결과는 비공개하다가 올 3월 “국민들의 불안이 증대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 및 투명한 공개의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민간조사단을 구성해 이번 결과를 도출했다. <한겨레>는 지난해 말 한수원의 ‘월성원전 부지 내 지하수 삼중수소 관리 현황 및 조치 계획’ 보고서를 입수해 고농도의 삼중수소 누출 등의 문제를 지적해온 바 있다.

익명을 요청한 한 원자력 안전 전문가는 “사용후핵연료 저장조의 차수막에 균열이 있고 이로 인해 부지 내 방사성 물질이 유출됐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지적된 문제”라며 “그동안 모른 척하던 문제를 이번에 사실로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사성 물질이 새어나가고 있다는 것이 공식적으로 밝혀진 만큼 현재 누출된 물질에 대한 긴급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사단은 방사성 물질의 외부 유출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다. 1호기뿐 아니라 월성 2~4호기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소의 차수막 상태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이현석 정의당 녹색정의위원장은 “부지 내 토양에 방사성 물질 누출된 것이기 때문에 토양 오염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해체 비용도 증가할 수 있다”며 “누출된 방사성 물질의 환경적 영향을 제대로 조사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환경단체들 “한수원·원안위 직무유기…진상조사 철저하게 수행”

환경단체들은 ‘인재’라고 규정하고 이를 방치한 원안위·한국수력원자력·원자력안전기술원 등의 책임을 물었다. 그린피스는 “한국 원전 안전 실패의 대표 사례”라며 “(누출된 물질의 안전성은)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음용수 기준의 70 배에 해당하는 농도로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로 관리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마리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는 “한수원·원안위·원자력 안전기술원 등은 방사성 물질로 인한 지하 환경 오염에 대한 소극적 대응을 멈추고 즉각 인근 주민과 지역 피해 규모에 대한 조사 대책 제시와 함께 누설 차단을 위한 보수 공사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연합도 “(이번 조사 결과는) 그동안 국내 원전의 안전이 얼마나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원전의 안전과 국민의 안위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한수원과 원안위의 직무유기이며,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문제 없다’는 식의 안일한 태도로 일관해 온 한수원과 원안위의 명백한 과실”이라고 비판했다.

[출처 : 한겨레신문]

## 언터처블 1%의 우정

2020 하계 패럴림픽이 어제 막을 내렸다.

패럴림픽에 참가한 선수들을 향해 인간승리라고 말한다. 맞다

한발로 높이뛰기하는 선수, 입에 탁구채를 물고 탁구 치는 모습은 예술에 가깝다. 모든 선수들이 장애는 가지고 있지만 이와 같이 운동으로 자신을 세상에 뽐낼 수 있는 모습에 빠져들게 한다.

이들은 장애라는 불편함을 가지고 있지만 운동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장애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다. 몸에 질병을 가지고 있지만 병과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하루하루 무언가와 싸워서 이겨내고 있는 비장애인들 모두가 승리자이다. 승리자 곁에는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지지와 믿음을 주는 누군가가 있다.

‘untouchable’은 만질 수 없는, 멀어서 손이 닿지 않는다는 뜻에서 알 수 있듯이 주인공 필립은

상위1%의 재력을 가졌지만 아무것도 만질 수 없고, 손끝 하나 움직일 수 없는 전신마비인 장애인이다. 도우미 드리스는 생활보조비를 받아 근근히 살아가는 하위1%로 건장한 몸을 가진 비장애인이다. 이들의 만남의 시작은 호기심에서 출발한다. 자라온 환경이 전혀 다른 두 사람이 만났으니 문화에 대한 호기심이 발동해서 한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필립의 환경을 부러워하고 필립은 건장한 체격과 자기의 생각을 거침없이 표현하는 자유인에게 매력을 느끼기 시작한다. 그들은 호기심의 단계를 넘어 상대의 아픔을 보게 되고 서로의 삶 속에 들어가게 된다. 드리스는 필립이 장애인보다 아내를 잃고 페러글라이딩 사고로 전신마비가 되었지만 지금도 살아있는 존재이며 사랑, 슬픔과 아픔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기에 함께 나눌 수 있는 동반자를 원하는 마음을 알게 된다. 드리스를 만나서 남자대 남자로 고민을 나누고 펜팔로만 사귀고 있는 여자를 만나기



까지의 여정은 가슴 뭉클함으로 다가온다.

이 영화의 제목이 언터처블 1%의 우정이다. 우정이란 친구 사이에 나누는 정신적 유대감을 말할 때 쓰이는 말에서 알듯이 필립과 드리스는 나이에 상관없이 모습에 상관없이 자라온 환경에 상관없이 친구가 되었다. 친구가 되었다는 것은 서로를 바라보는 눈의 높이가 같음을 알 수 있다. 참 따뜻하다. 각자의 삶을 존중해주며 같이 있을 때 울타리처럼 안정감을 느낀다. 수다스러움에서 눈빛 하나로도 충분한 모습으로 변해가는 찐 우정이 부럽다. 또 이 영화가 실화인 것이 부러움을 더한다. 장애에 집중하지 않고 한 인간으로서 삶을 살 수 있도록 일상의 소중함을 잘 표현했다. 일상을 영위하는데 장애는 불편한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한다. 장애를 극복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조금은 자유로운 느낌을 받았다. 영화 한 편이 장애인이 겪는 상상도 못해본 어려움과 내면의 고민들, 내 안에 알지 못했던 편견을 들여다보게 하는 의미있는 시간이었다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는 장애인이 제대로 장애를 이겨나가는 모습 속에서 온 가족의 희생을 당연시 여기며 비장애인이 감수해야 할 일들이 눈물겹게 그려진다. 아직도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곳곳에 산재해 있지만 이번 페럴림

픽에서 선수들이 등수에 얽매이지 않고 운동을 즐기는 모습을 여러 경기에서 보여줬을 때 비장애인 올림픽에서 느끼지 못한 진한 감동이 있었다. 이 자리까지의 땀방울이 안스러움보다 대견함으로 다가왔고, 응원하게 되고 덤으로 재미있게 봤다. 그들을 향한 응원이 삶속에서도 계속어나가길...

글: 팽말속 당진환경운동연합 소식지 편집위원



# "기후위기 시대 10개나 되는 공항개발? 당장 철회해야"

## 신공항반대공동행동, 국토교통부 앞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 철회 요구



9월 29일 오전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열린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 폐기' 촉구 기자회견

신공항반대공동행동은 29일 오전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폐기'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충남 서산민항을 반대하는 기후위기 충남행동도 참여했다. 기후위기 충남행동 외에도 새만금공항반대시민공동행동, 가덕도신공항반대공동행동 등도 신공항반대공동행동의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다.

국토부의 6차 공항개발계획에는 가덕도신공항, 새만금신공항, 제주 제2공항, 서산민항, 대구공항(이전), 흑산공항, 백령공항, 울릉공항, 경기남부 민간공항, 포천 민간공항의 10개 공항에 대한 개발 계획이 포함돼 있다.

신공항반대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은 "공항개발 계획은 기후위기를 외면하고 토건자본을 배 불리는 일"이라며 "당장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역공항의 추가건설은 지역

경제를 살리는 길이 절대 아니다. 지역주민들의 눈과 귀를 현혹하며 무분별하게 진행하려는 공항건설계획은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동행동은 "2050년 탄소중립을 이루겠다고 선언한 정부가 건설과 운영 과정에서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갯벌과 산림 등 온실가스 흡수원을 파괴해 이중의 악영향을 초래하는 공항을 10개나 더 짓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세계 각국은 코로나19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는 항공이용을 줄이기 위해 기존공항을 폐쇄하고 신규공항 계획을 철회하고 있다"며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하는 무분별한 공항건설 계획이 담긴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출처 : 오마이뉴스]



## 2021년 9월 결산보고서 (사업기간: 2021년 9월 1일 ~ 9월 30일)

## 수입액

[항명]	[목명]	수입집계	비고
이월금	8월 이월금	7,086,786	전월이월금
회원회비	개인회비	5,900,000	CMS, 자동이체, 지로, 특별회비
	<b>[항집계]</b>	<b>5,900,000</b>	
후원금	일반후원	358,700	개인 후원금
	재정사업	0	후원금
	<b>[항집계]</b>	<b>358,700</b>	
사업수입	회원사업	0	회원사업
	공모사업	0	공모사업
	기타사업	0	기타사업 수입
	<b>[항집계]</b>	<b>0</b>	
기타수입	기타수입	0	예금이자
	<b>[항집계]</b>	<b>0</b>	
월수입 총액	계	6,258,700	
수입 총액	계	13,345,486	전월이월금 포함

## 지출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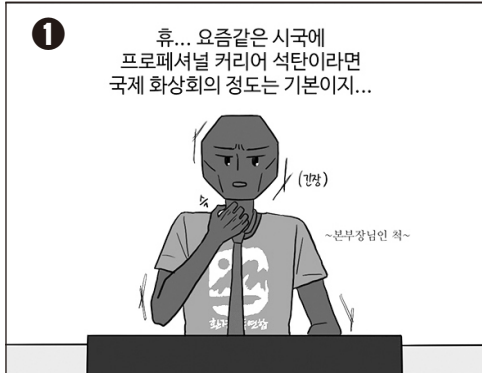
[항명]	[목명]	지출집계	비고
경상비	제세공과금	502,340	자동차보험료, 취득세, 전화료, 전기료, 신문대금, 수수료 등
	유지관리비	781,430	관리비, 집기구입, 차량수리비, 실내등유, 커피구입 등
	자산취득비	0	비품, 자산구입
	복지후생비	194,000	업무추진비, 식대 등
	<b>[항집계]</b>	<b>1,477,770</b>	
인건비	급여	4,330,000	상근자 2인
	상여	1,082,500	
	퇴직적립금	360,840	
	사회보험료	450,470	
	<b>[항집계]</b>	<b>6,223,810</b>	
사업비	일반, 공모사업	184,000	공모사업, 석탄화력, 송전탑, 등 현안사업 준비
	조직, 회원사업	794,840	총회, 소식지 인쇄 및 발송, 운영위 및 편집위원회, 함길구독 외
	정책, 조사사업	0	교육 및 정책사업비
	연대사업비	364,860	중앙 분담금, 연대사업, 충남환경연합 분담금 등
	기획재정사업	0	후원의밤
	<b>[항집계]</b>	<b>1,343,700</b>	
기금조성비	장기발전기금	100,000	장기발전기금
	<b>[항집계]</b>	<b>100,000</b>	
지출총액	계	9,145,280	

2021년 9월 잔액 4,200,206

석탄씨를  
구해줘

제 13화 지금 뭐라고  
하신거예요?

13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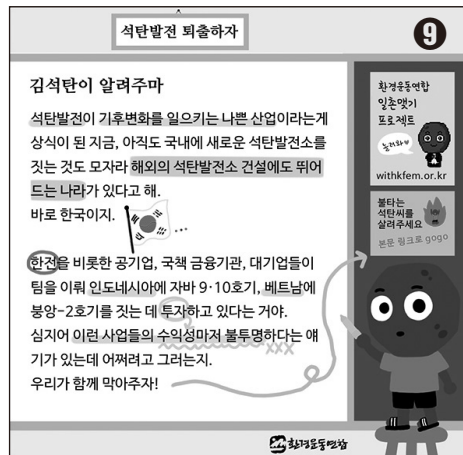


(‘석탄씨를 구해줘’는 매주 토요일 환경운동연합 SNS를 통해 연재되는 웹툰입니다.)  
<출처 :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석탄씨를 구해줘

제 13화 지금 뭐라고 하신거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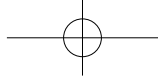
13화



김석탄이 알려주마

석탄발전이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나쁜 산업이라는게 상식이 된 지금, 아직도 국내에 새로운 석탄발전소를 짓는 것도 모자라 해외의 석탄발전소 건설에도 뛰어 드는 나라가 있다고 해 바로 한국이지

한전을 비롯한 공기업, 국책 금융기관, 대기업들이 팀을 이뤄 인도네시아에 자바 9,10호기, 베트남에 봉양-2호기를 짓는데 투자하고 있다는 거야. 심지어 이런 사업들의 수익성마저 불투명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쩌려고 그러는지 우리가 함께 막아주자!



## 9월 활동소식



### 2021 탈석탄-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응 국제컨퍼런스 참여

9월 8일~9일 이틀간 덕산 스피러스리움에서 '2021 탈석탄-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응 국제 컨퍼런스'가 개최되었습니다. 8일은 개막식과 언더2연합 아태포럼이 진행되었고 9일은 5개의 세션이 진행되었습니다.



### 제9회 충남환경 교육한마당 참여

9월 10일 충남환경교육한마당이 당진시청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당진환경운동연합은 다육이 심기 체험 부스를 운영하였습니다.



### 수원 군공항 유치 보도 관련 당진시장 면담

9월 17일 수원 군공항 유치 추진 언론 보도와 관련해 당진시장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 전국 동시다발 기후행동 충남집중행동

기후위기 충남행동이 9월 25일 천안 터미널 앞에서 '석탄화력 조기폐쇄, 재생에너지 확대'를 촉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캠페인은 전국 동시다발 기후행동의 일환으로 진행된 충남집중행동이었으며 당진환경운동연합은 8명이 참석해 함께 했습니다.



## 강릉 안인화력발전소 건설 중단 캠페인

9월 26일(일)~27일(월) 탈석탄네트워크 '석탄을 넘어서'가 강릉 안인화력 석탄 발전소 건설 중단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 폐기하라”

기후위기 충남행동은 신공항 반대 전국공동행동과 함께 9월 29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 01 일반사업

- ❖ 10/01(금) 10:00 서천 송전선로 협의회 회의 - 서천 지속가능지역재단  
14:00 당진시 환경보전계획 수립 간담회 - 당진시청
- ❖ 10/02(토) 09:00 시민과 함께하는 물살리기 플로깅 - 삽교호 방조제
- ❖ 10/05(화) 15:00 공동의장단 임시 회의 - 사무실  
18:30 운영위원회 회의 - 사무실
- ❖ 10/06(수) 09:00 당진시 기후변화 적응대책 관련 간담회 - 사무실  
14:00 금강유역환경회의 충남지역위 포럼 - 서천 조류생태전시관
- ❖ 10/07(목) 14:00 화학사고 지역대비체계 초동대응 연구회 회의 - 온라인  
16:00 당진시 산폐장 공론화위원회 회의 - 당진시청
- ❖ 10/08(금) 09:20 당진시 기후변화 적응계획 중간보고회 - 당진시청  
13:30 송전선로 관련 대전MBC 인터뷰 - 사무실
- ❖ 10/11(월) 12:00 송전선로 역학조사 관련 간담회 - 사무실
- ❖ 10/12(화) 11:00 에코생협 당진점 운영위 회의 - 에코생협 당진점
- ❖ 10/14(목) 17:00 환경운동연합 후원의 밤 - 서울 환경센터 마당
- ❖ 10/16(토) 13:00 당진시 복지박람회 부스 운영 - 당진시청 야외무대
- ❖ 10/18(월) 14:00 당진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 회의 - 당진시청
- ❖ 10/19(화) 14:00 환경연합 재생에너지협의회 회의 - 온라인
- ❖ 10/21(목) 14:00 당진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소위원회 회의 - 당진시청
- ❖ 10/22(금) 10:00 농어촌 탄소중립 현장토론회 - 내포혁신플랫폼  
15:00 충남시민사회 대선/지방선거 준비 간담회 - 내포혁신플랫폼  
16:00 당진화력 민간환경감시센터 운영위 회의 - 당진공익활동지원센터  
10:00 에코생협 당진점 나눔장터 - 에코생협 당진점
- ❖ 10/25(월) 11:00 천안에너지전환활동가 교육 - 광덕산환경교육센터
- ❖ 10/26(화) 17:00 공동의장단 회의 - 사무실
- ❖ 10/28(목) 종일 제7회 금강한마당 - 청주 문암생태공원
- ❖ 10/28(목) ~ 10/29(금) 충남에너지전환 활동가 워크숍 - 미정
- ❖ 10/30(토) 09:00 시민과 함께하는 물살리기 플로깅 - 미정

# 02 회의 및 기타일정

- ❖ 사무국 회의 -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 ❖ 주부환경지킴이- 매주 월요일 오후 7시30분, 최현준실용음악학원
- ❖ 소식지 편집위원회 - 10/26(화) 11시30분

# 03 지역현안

- ❖ 석문산단 불산공장 입주
- ❖ 석문산단 LNG기지 건설
- ❖ 송산·석문 산업폐기물 처리시설
- ❖ 당진화력-신송산 간 345kV 송전선로
- ❖ 북당진-신탕정 간 345kV 송전선로

이달회비 납부 회원

가봉현 강남기 강남호 강도연 강병수 강삼옥 강은구 강은식 고낙현 고락일 고영훈 고재만 고중민 곽성심  
 광영복 구경숙 구미선 구분갑 구분재 구분찬 구분평 구분현 구승남 권석원 권영석 권중원 길호중 김경희  
 김경희 김광수 김광운 김광태 김광호 김권기 김기권 김기동 김기재 김길자 김남조 김남철 김남철 김달식  
 김대원 김동균 김동길 김동수 김동진 김동철 김동환 김두현 김명구 김명신 김명용 김명호 김미경 김미성  
 김민경 김민호 김백선 김병구 김병빈 김보담 김본겸 김봉균 김봉운 김석규 김석래 김선규 김성훈 김세진  
 김수정 김수진 김수창 김수한 김순동 김승수 김신순 김양중 김영민 김영삼 김영자 김영준 김예나 김용준  
 김용훈 김원용 김윤자 김윤태 김은주 김은주 김은호 김용열 김일권 김재성 김재영 김재진 김정근 김정숙  
 김정순 김정아 김정진 김종균 김종래 김종범 김주석 김지환 김 진 김진남 김진용 김진호 김철환 김춘이 김태기  
 김필배 김하정 김현기 김현림 김형기 김형모 김혜선 김혜숙 김호인 김홍장 김홍희 김홍환 나상흠 남철현  
 노정길 노정민 노창열 류경자 류연석 류제민 맹봉재 맹정재 명형남 문상수 문영미 문영수 문은호 문창모  
 박경미 박경서 박경언 박경일 박규섭 박근성 박기술 박미상 박미현 박상길 박상준 박성규 박성민 박세진  
 박순례 박신규 박연신 박영일 박영환 박용상 박윤숙 박은자 박은정 박은희 박이리사 박인순 박정연 박종대  
 박종연 박종화 박창순 박태식 박해규 박현순 박호완 박 훈 박희경 박희복 박희정 방승미 방차옥 배국희 배병호  
 백광현 백운경 백종렬 서동우 서지현 신 오 성낙석 소병희 손강열 손민우 손영기 손영미 손종선 손창원 손화웅  
 송노섭 송병언 송수연 송연섭 송영주 송은호 송재한 송창병 송하중 송형식 신경상 신동균 신미희 신양웅  
 신진호 신철석 신현기 신현덕 신현하 신현환 심재권 심주현 심중섭 안길훈 안동일 안동책 안병호 안승환  
 안영순 안영훈 안자호 안효권 안효선 양근호 양영진 양정만 엄기태 오동원 오윤정 오의환 오추석 오현동  
 오훈순 우동기 원유영 유미화 유 성 유영석 유중준 유현경 유형민 육이창 윤기섭 윤기영 윤도현 윤범용 윤은경  
 윤인현 윤재무 윤정득 윤주홍 윤현순 윤혜신 이강선 이경미 이경용 이광선 이규달 이규철 이근주 이기종  
 이능용 이대우 이덕표 이동준 이두용 이명자 이미영 이병구 이병도 이병천 이보은 이봉기 이상록 이상문  
 이상용 이상우 이상일 이새봄 이석규 이선이 이성남 이수현 이순영 이승호 이영근 이영길 이영미 이영수  
 이영우 이용석 이원복 이원석 이은화 이인범 이인수 이인숙 이일구 이일순 이장희 이재상 이재성 이재화  
 이재훈 이정선 이정옥 이정환 이정훈 이종관 이종필 이준성 이중호 이증영 이창규 이충휘 이해선 이해운  
 이해은 이현남 이현숙 이호경 이호선 이홍숙 인남교 인만교 인호환 임관택 임광빈 임미숙 임수진 임아연  
 임옥출 임종광 임종석 장규진 장덕기 장미경 전종숙 전향숙 정경채 정광영 정낙구 정덕영 정봉식 정상수  
 정선희 정세훈 정영표 정의철 정중환 정중섭 정찬관 정치용 조강호 조대연 조민형 조상연 조성대 조성준  
 조성환 조수용 조수현 조순형 조신형 조용재 조재형 조한영 주영권 주은자 지광선 차기능 차일병 차재석  
 천선휘 천혜경 최강부 최기승 최대실 최도현 최병수 최석현 최성욱 최세호 최연복 최오상 최완택 최원근  
 최은진 최인호 최일규 최장열 최재혁 최종길 최종원 최지웅 최창용 최혜인 최효진 팽말숙 하용자 하정미  
 하정이 한광현 한기홍 한문기 한미경 한상무 한상태 한성현 한수미 한수석 한영우 한원희 한청수 함효진  
 허인욱 현 민 호상기 호용기 홍기석 홍덕선 홍두표 홍명옥 황성렬 황영호 황푸름 (주)다올건설산업 (주)디에스  
 귀염둥이아띠어린이집 위너교육이벤트 당진시대 당진여객(주) 별나라어린이집상록인쇄사 세실리아요양센터  
 영축농장 율곡어린이집 정우건설(주) 해송 환경운동연합에코생협

함께해요  
2021 에코당진  
나눔장터

나눔장터의 수익금 전액은 불우이웃에 전달됩니다.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개인물품 기증 받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유정란, 두부, 콩나물, 순살고등어, 떡갈비 10% 할인  
한우육회, 생표고버섯 특별공급  
먹거리장터(반찬판매외) 수공예악세사리판매

**일시** 2021.10.22 (금) 10:00~16:00

**장소** 에코생협 당진점 주차장 당진시 무수동 2길 20 벽우

**나눔품목** 의류, 생활용품, 주방용품, 완구류, 유아용품,  
잡화, 등 장터에서 판매 가능한 모든것들

**에코장터** 먹거리 장터, 수공예품 생산자 초청  
인기 생활재 할인판매 등 다양한 행사 진행

에코생협 당진점  
041-358-7161